Daishin 증권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Morning Meeting Brief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Global Daishin View] 2025 년 12 월 3 주차

- '12월 FOMC'에 이은 두번째 산타 '트럼프' . 성탄절 전후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예상
- GE 버노바, 중장기 실적 전망 상향. 로보센스, 장거리 라이다 공급 체결. 디지털리얼티, 인도 JV 설립&30년까지 110억달러 투자계획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미국) GE버노바, (중국) 로보센스, (ETF) Definance Quantum ETF(QTUM), (글로벌리츠) 디지털리얼티

해외전략 문남중, 미국주식 서영재, 중국주식 박초화, 글로벌리츠 김다은, 이슈 문건우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AI 버블 논란

- 미국증시 여파로 약세를 보인 코스피, 상대적으로 견조한 코스닥
- 오라클, 브로드컴이 깨운 AI 버블 논란. '옥석' 판별할 기회
- 특징업종: 우주항공/소매업종 강세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Policy Mix & 골디락스 기대. 문제는 AI 버블 논란. 마이크론이 중요한 이유

- 美 통화정책 후퇴 우려는 진정. 다만, AI 버블 논란 재부각, 변동성 확대 경계
- 17일 마이크론 실적발표. 반도체 사이클상 위치, 버블 논란 완화 여부 주목
- 4,000선 전후 순환매, 이하는 5,000선 염두해둔 주도주 매집전략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 Comment] 우리금융지주: 내년 2 월까지 우금지!(목표주가 +23.3% 상향)

- 목표주가 37,000원으로 상향, 경쟁사 대비 풍부한 모멘텀
- 증권/보험 실적 내년부터 Full year 반영, '27년 본격적 이익 기여
- '26년 환원율 40%로 상향, 향후 총 환원액 증가폭 가장 높을 것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The Global
Global Daishin View

해외전략 문남중
미국주식 서영재
중국주식 박초화
글로벌리츠 김다은
이슈 문건우

Weekly

2025년 12월 3주차

- 'FOMC'에 이은 두번째 산타 '트럼프'. 성탄절 전후 차기 연준 의장 지명
- GE 버노바, 중장기 실적 전망 상향. 로보센스, 장거리 라이다 공급 체결
- 주식 포커스: GE버노바, 로보센스, Definance Quantum ETF(QTUM), 디지털리얼티

[해외전략] 두번째 산타는 '트럼프'. 성탄절 전후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예상. 금융시장 증시 이벤트 전후, 증시 변동성 확대는 비중확대 기회

12월 FOMC 전후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두고 언론전을 펼치는 상황을 감안하면, 성탄절 전후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할 가능성. 이를 통해 올해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오고 있는 미국 증시의 행적을 본인의 공으로 돌리려고 할 것. 금융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벤트 전후의 증시 변동성 확대는 비중확대 기회

[미국주식] GE 버노바(GEV): 중장기 실적 전망 상향 및 주주환원 확대 발표

2028년까지 매출 목표를 520억 달러, 조정 EBITDA 마진을 20%로 상향 조정하며 기존 전망치 450억 달러, 14% 대비 큰 폭으로 상승. 2025~2028년 누적 잉여현금흐름 전망을 140억 달러에서 22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동기간 100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 포함. 26.1/4분기 배당금 0.50달러로 두 배 인상, 자사주 매입 한도도 6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확대

[중국주식] 로보센스(2498.HK): 중국 도요타(JV)로부터 5년간 100만대 독점 수주

로보센스, 중국 도요타 JV 모델에 장거리 라이다 전량 독점 공급 계약 체결, 도요타는 5년간 약 100만 대 규모 라이다 주문 예정. 이는 기존 중국 도요타와의 순수 전기차 모델 독점 공급에 이은 두 번째 대형 계약. 로보센스의 아우디, 폭스바겐 등 해외 JV 브랜드 누적 수주 100만 대 돌파. 한편 로보센스는 2026 CES에서 AI 손-눈 협력 솔루션, 라이다 신제품 등도 발표 예정

[ETF] Definance Quantum ETF(QTUM): 노벨상 물리학 수상자, 중국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곧 미국을 추월할 것 예측

202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마르티니스 캘리포니아대학 교수, 중국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에 비해 '몇 나노초' 앞서 있을 뿐이라고 평가. 구글이 2019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 냈을 때 미국의 과학자들은 중국이 최소 3년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이 따라잡는 데 성공했다고 언급. 중국이 미국을 조만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글로벌리츠] 디지털리얼티(DLR): 인도 JV 설립, 2030년까지 110억달러 투자계획

디지털리얼티는 Reliance Industries(인도 최대 정유/통신 기업), Brookfield (글로벌 투자사)와 인도 데이터센터 사업 진출을 위한 JV 'Digital Connexion' 출범. 2030년까지 5년간 110억달러 투입 예정으로 약 400 에이커 부지에 1GW AI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 인도 데이터센터 설비용량은 1.3GW으로 APAC내 4위 규모+2030년까지 3GW 용량 추가 예상되는 고성장 시장. 기존 북미 중심의 DLR 성장 축에 인도를 추가함으로써 이머징 마켓 점유율 확대 의지 표명

Strategy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AI 버블 논란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미국증시 여파로 약세를 보인 코스피, 상대적으로 견조한 코스닥
- 오라클, 브로드컴이 깬운 AI 버블 논란. '옥석' 판별할 기회
- 특징업종: 우주항공 / 소매업종 강세

미국증시 여파로 약세를 보인 코스피, 상대적으로 견조한 코스닥

– 코스피는 장초반부터 외국인 현선물 대량 순매도로 KOSPI 4,100선을 중심으로 등락 반복하다 4,090선에서 마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대 급락으로 내수주 강세에도 분위기 반전 실패

– 코스닥은 로봇, 바이오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 장 후반 내년 1월 초 중국에서 'K팝 콘서트' 개최를 추진한다는 정부발표로 엔터 업종이 강세, 플러스 전환

– 미국증시는 12월 FOMC 이후 AI 버블 논란 재부상.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수익성 악화 논란, 투자 지연, 밸류에이션 부담 가중 등이 확대 재생산

오라클, 브로드컴이 깬운 AI 버블 논란. '옥석' 판별할 기회

– 오라클이 인력과 자재 부족을 이유로 오픈AI 용 데이터센터 완공 시점을 '27년에서 '28년으로 연기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주가가 추가로 4% 넘게 하락

– 브로드컴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AI 매출이 비 AI 매출보다 총 마진이 작다는 호크 탄 CEO의 발언으로 급락

– 다만, AI 버블과 수익성 악화 논란은 '옥석' 판별의 기회. 알파벳 밸류체인, 재무건전성과 이익률이 견고한 기업들 중심으로 비중확대 전략 유효

반도체: 삼성전자(–3.8%), SK하이닉스(–3.0%), DB하이텍(–3.3%)

– 페르미는 텍사스 데이터센터 부지 관련 독점 협상을 진행하던 Tenant로부터 1.5억 달러 규모 건설 자금 지원 계약 해지 발표 이후 급락. 데이터센터발 원전 수요 가시성 재검토 흐름 확산

원전/전력기기: 두산에너빌리티(–3.3%), 현대건설(–6.3%), LS ELECTRIC(–4.6%)

특징업종: 우주항공 / 소매업종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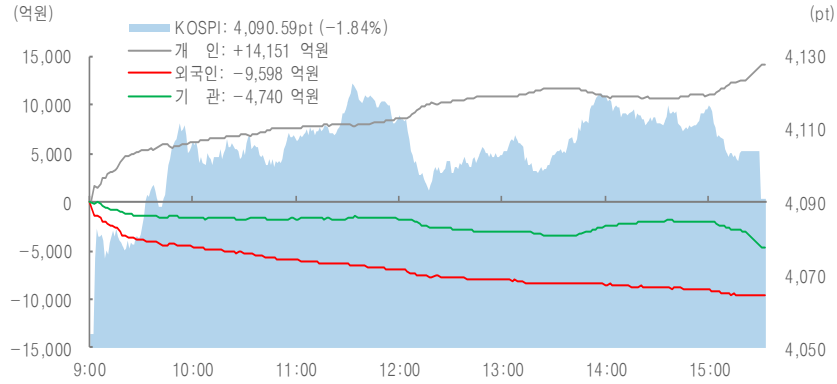
– **우주/항공**: 14일(현지시간) WSJ가 보도한 스페이스X의 IPO 자문사 선정 절차 착수 소식

세아베스틸지주(+9.4%), 쎄트렉아이(+2.2%), 아주IB투자(+11.8%)

– **소매/유통**: 이마트, 신세계푸드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추진. 업종 전반 턴어라운드 기대감

이마트(+8.8%), 신세계(+2.9%), 영원무역(+2.7%), GS리테일(+1.6%)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간 퀀틴전시 플랜

Strategy

Policy Mix & 골디락스 기대. 문제는 AI 버블 논란. 마이크론이 중요한 이유

- 美 통화정책 후퇴 우려는 진정. 다만, AI 버블 논란 재부각, 변동성 확대 경계
- 17일 마이크론 실적발표. 반도체 사이클상 위치, 버블 논란 완화 여부 주목
- 4,000선 전후 순환매, 이하는 5,000선 염두해둔 주도주 매집전략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11월 증시 변동성의 핵심 변수였던 美 통화정책 후퇴 우려는 진정. 다만, AI 버블 논란이 재부각되면서 단기 변동성 확대 경계

연준은 12월 FOMC에서 3회 연속 금리 인하 단행. 추가로 12월 12일부터 단기국채 즉시 매입 결정, 단기 유동성 불안 진정 예상. 점도표는 26년 이후 장기금리 전망 유지. GDP 성장 전망은 상향되면서도 PCE 물가 전망은 하향 조정, 골디락스 기대 자극.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가까워졌음에도,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위원은 없다고 밝히며 인하 사이클이 유효함을 재확인. 금리인상 우려 불식. 이는 2026년 Policy Mix 모멘텀이 견조함을 시사. 위험자산의 Asset Inflation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 확대

다만, 10일 오라클, 11일 브로드컴 실적 공개 이후 AI 버블 논란 재부상. 투자 및 상용화 시점 지연,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확대 재생산되며 지난 주말 빅테크 기업 동반 급락. 11월 증시 변동성의 핵심 변수였던 미국 통화정책 후퇴 우려는 진정되었지만, AI 버블 논란이 재부각되면서 단기 변동성 확대 경계

단기 Risk Off 전환, 변동성 확대 가능성 시사. 적극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 16일 고용지표, 18일 CPI, 17일 마이크론 실적발표 주목

중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모두 Risk On 시그널 정점권에 진입했고, VIX도 박스권 하단인 15%에 도달하면서 단기 Risk Off 전환, 변동성 확대 가능성 시사. 이로 인해 KOSPI가 다시 4,000선을 하회하거나, 단기 UnderShooting으로 3,800선대를 하회할 경우 적극 비중확대 전략의 기회로 활용

미국 경기/소비, AI 기업들의 실적은 견고, 주요국 금리인하 사이클, 경기부양 드라이브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 즉, 최근 조정은 펀더멘털 불확실성보다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 4분기 과열해소, 매물소화 이후 26년 KOSPI는 5,000시대로 향할 전망

이번주 주요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12월 FOMC의 해석과 통화정책 컨센서스 변화 주목. 16일 11월 비농업고용자수는 +4만 건, 실업률은 4.4%로 예상. 부진한 고용지표는 연준 금리인하 사이클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 18일 CPI는 헤드라인 및 근원 물가지수 모두 YoY +3.1%로 9월(3.0%) 대비 증가 예상. 3%대의 물가는 부담 요인이지만, 물가 상승 품목이 관세 영향에 한정된다면 중장기 추세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로 연준내 의견 충돌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 변수

17일(수) 예정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주목. 실적 호조는 예상된 상황. 관건은 마진율 개선 여부. 마이크론의 실적 결과는 최근 유입되는 하드웨어 기업들의 수익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고, 반도체 산업의 현재 상황은 사이클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Trading 전략 : 실적대비 저평가주 & 낙폭과대 업종인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에너지, 증권, 보험 주목

KOSPI 4,000선 전후에서 등락은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순환매 대응 유효. 한편, KOSPI 4,000선 이하에서는 KOSPI 5,000시대를 염두에 둔 주도주 매집전략 제안

지난 주말 기준 실적대비 저평가, 단기 낙폭과대 업종으로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에너지, 증권, 보험 있음. 현재 가격/지수대부터 단기 등락을 활용한 비중확대 전략 권고.

한편, 최근 급등세를 보인 자동차, 제약/바이오, 2차전지 등은 단기 변동성 확대시 분할매수 관점에서 접근 유효

Issue Comment

우리금융지주 (316140)

내년 2월까지 우금지!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권용수RA yongsu.kwon@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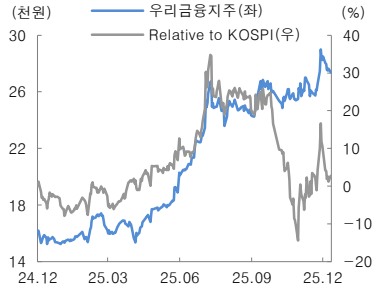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7,000
상향

현재주가 (25.12.15) 27,400
은행업종

KOSPI	4,090.59
시가총액	20,11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60%
자본금(보통주)	3,80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9,000원 / 15,24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98억원
외국인지분율	47.59%
주요주주	우리금융지주우리사주 외 1 인 7.88% 국민연금공단 6.7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2	3.6	33.3	72.4
상대수익률	0.3	-13.7	-5.6	5.2



- 목표주가 37,000원으로 상향, 경쟁사 대비 풍부한 모멘텀
- 증권/보험 실적 내년부터 Full year 반영, '27년 본격적 이익 기여
- '26년 환원율 40%로 상향, 향후 총 환원액 증가폭 가장 높을 것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7,000원으로 23.3% 상향 조정

동사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30,000원에서 37,000원으로 23.3% 상향함. 상향 근거는 BPS를 2026년 추정치로 변경하였고, Target PBR도 0.63x에서 0.71x로 상향한 데 기인. 1) 보험, 증권 실적 반영으로 '26년부터 경쟁사 대비 이익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2) 총환원율이 앞으로 꾸준히 상향되는 점, 이에 따른 총 환원액이 커버리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종 내 최선호주 유지. 뿐만 아니라 홍콩 ELS 과징금에서도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되었고, '25년 4분기 분기배당부터 시작될 비과세 배당도 투자포인트

'25년 경쟁사의 비이자이익은 사상 최대였음. 은행의 이익이 제한되는 가운데 비이자이익이 여기서 크게 증가하는 것은 쉽지 않음. 또한 총 환원율 50%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달성할 회사가 늘어나는데,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광폭적인 행보를 유지하긴 쉽지 않음. 동사는 올해 35%에서 시작해 50%까지 올라갈 여력이 많아 남아있는데, 비은행계열사 포트폴리오 완성에 따른 이익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어 총 환원액 관점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

'26년 증가하는 이익과 더불어 40%로 상향되는 총 환원율

우리는 동사의 2026년 순이익을 3.32조원으로 '25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기존 추정 대비 소폭 하향). 동양/ABL생명과 우리투자증권 실적 기여가 4개분기 Fully 반영되기 때문에 타 금융지주 대비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 다만 '25년 인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이 대거 반영되어 기존 전망 대비 이익 증가폭은 다소 적을 수 밖에 없음. 우리는 '26년 동양/ABL생명의 순이익을 1,557억원, 우리투자증권은 61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양 사 합산 2,000억원 수준의 추가 이익 기여 가능할 전망. 동양생명은 인수 후 ALM매칭이 우선일 것으로 예상되어 공격적인 매출 성장보다는 K-ICS비율 안정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 따라서 '26년 이익기여도는 동양생명의 이익 고점(3,100억원) 대비로는 다소 부진하나 경험요율 조정, 보장한도 축소, K-ICS비율 상승에 따라 '27년부터 본격적인 이익 기여 가능할 전망

증권의 경우, '25년은 통합 증권사 출범에 따른 광고선전비 등 비용이 늘어나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 자본이 아직 1.2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IB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 연간 2,000억원 내외의 증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와 더불어 동사가 발표한 동반성장 프로젝트 가운데 증권 중심 모험자본 육성이 포함되어 있어 내년부터 증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 다만 실질적 이익 기여 시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26년은 탑라인 성장보다는 판관비 감소에 따른 이익 증가 전망

(다음페이지 계속)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